

# 아이폰7 오늘 출시... 개통비율 관심

### 이동통신3사 전국 주요 매장에서 출시행사... 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 선택이 절대 유리

애플의 신작 프리미엄폰 '아이폰7'이 오늘 국내 상륙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이 퇴장하면서 아이폰7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오늘 오전 전국 주요매장에서 아이폰7 출시행사를 열어 판매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등 출시 행사장 앞에는 숙식을 하며 아이폰7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각사는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을 조기 발표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대적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폰7 출고가는 86만9000원(32GB), 99만9900원(128GB), 113만1800원(256GB)으로 정해졌다. 아이폰7 플러스 모델은 102만1900원(32GB), 115만2800원(128GB)원이다. 가장 대용량 모델인 아이폰7 플러스 256GB 모델은 128만3700원으로 고가다.

색상은 제트블랙, 블랙, 골드, 실버, 로즈 골드로 총 5종류다. 아이폰7 화면 크기는 4.7인치, 무게는 138g에 달한다. 아이폰7플러스 모델은 5.5인치, 무게는 188g이다. 전작과 달리 3.5mm 이어폰을 꽂는 구멍을 없애고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별도로 판다. 공시지원금을 보면 아이폰7 128GB



파기원 연구실 둘러보기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구실을 둘러보고 있다.

기준으로 이용자가 많이 쓰는 5만원대 요금의 경우 SK텔레콤은 6만1000원, KT 5만1800원, LG유플러스 6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보조금 대신 20% 요금할인(24개월 약정 시)을 선택하면 SK텔레콤 26만9280원(매달 1만1220원 요금할인x24

개월), KT 26만14000원(매달 1만1000원 할인), LG유플러스 26만8752원(매달 1만1198원 할인)의 혜택이 있어 아이폰7 시리즈는 20% 요금할인을 받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 부담하는데 통상적으로 애플은 다

른 제조사에 비해 단말 마케팅비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이다.

조기 마감된 예약판매에는 허수 지원자가 있기 마련인데 아이폰7 출시 당일인 21일 실제 개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가 될 지 일찌감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 GM, '한국전자전' 에 미래 친환경차 전시

### 쉐보레 볼트·볼트 EV 등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되는 '2016 한국전자전(KES: Korea Electronics Show)'에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전시 참가하고 GM의 친환경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GM은 이번 한국전자전에서 주행거리 연장전기차 쉐보레 볼트(Volt)와 최근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383km(238마일)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 받은 순수전기차 볼트(Bolt) EV를 국내 최초로 전시한다.

특히, 개막일에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지엠 제임스 김(James Kim) 사장을 비롯, 로웰 패독(Lowell Paddock) GM 해외사업부문 제품기획 및 프로그램 부문 부사장과 마틴 머

레이(Martin Murray) GM 전기차 개발 담당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쉐보레 전기차 개발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GM 모빌리티 포럼과 쉐보레 볼트EV의 제품 프리뷰는 26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한국지엠 블로그와 쉐보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특히 트위터 생중계는 IT 친화적인 자동차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지엠은 미래 친환경차 전략 수립을 위해 고객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웹사이트(<https://www.gmcarssouthkorea.com/share-your-story>)

를 통해 혁신적인 순수 전기차 볼트 EV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와 반응을 확인 중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 구매·피해구제 모바일로 '원스톱' 처리

### 행자부·공정위, 소비자 종합지원 업무협약... 12월 말 서비스

12월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기관과 함께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리콜, 품질인증, 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의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 두면 사후리콜, 위해정보 등 발생시

모바일 앱으로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기관별로 피해구제 청구와 누리집이 분산돼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연계해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맞춤형 정보제공에 참여하고 피해구제 청구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피해구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뉴시스

# 원조 경차 '티코' 멸종 위기... 포니·브리사는 '쌍쌍'

우리 나라 첫 경차인 티코가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노후로 인한 폐차가 늘면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차량이 전국을 통틀어 100대도 안되는 상황이다. 차가 희소해지면 '몸값'만 올라가고 있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록 기준으로 올 9월 말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티코는 전국에 86대가 있다. 티코는 1991년 생산을 시작해 2001년 단종될 때까지 10년간 내수로 41만여대가 팔렸는데 현재 우리 나라 도로에서 거의 사라진 것이다.

티코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104대가 남아 있었으나 1년 새 18대가 폐차했다.

티코의 '실종' 속도는 울드카로 평가받는 국산 다른 차종에 비해

등록 대수 86대... 희소성 부각되며 몸값은 상승  
포니 6390대·브리사 189대·제미니 239대 인기 여전

현저히 빠른 편이다.

1975년 생산을 시작한 우리 나라 첫 독자 모델 차량인 현대차 포니의 경우만 봐도 9월 말 현재 6390대나 등록돼 있다. 포니는 1990년 단종 이후 26년의 세월이 지난음에도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단종 차량인 기아차 브리사(189대)와 대우차 제미니(239대)도 여전히 생존 신고를 하고 있다.

티코가 이처럼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이유는 품질과 관련 있어 보인다. 티코는 출시 당시 저렴한 가격(300만~400만원)을 감점

으로 내세웠지만 잔고장이 많아 내구성은 약점으로 꼽혔다. 내구성이 떨어지다보니 연식이 올라가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연스레 '폐장' 수순을 밟는 차량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티코는 그러나 이런 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커 희소성이 있다보니 몸값은 오르고 있다. 중고차 전문사이트 보배드림엔 1997년 2월식 티코 모델이 출시가격 수준인 45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티코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티코는 우리 나라에 경차 시장을 열었던 최초 모델이라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가 있고 사실상 '서민의 발'이 되어준 첫 차라는 문화적 가치도 있다"며 "티코는 보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차량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안을 다룰 지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 애플, '맥킨토시' 신제품 27일 발표

미국의 애플이 다음 주 맥북을 비롯한 '맥킨토시' 신제품을 발표한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지난달 아이폰과 애플워치 신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27일 디자인 외형 등을 바꾼 맥킨토시라고 밝혔다.

맥킨토시 신제품 발표 행사는 '또 다시 안녕(hello again)'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진행된다. 이 회사가 맥킨토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12인치 노트북인 맥북(MacBook)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이후 처음이다.

애플은 그동안 ▲새롭게 디자인한

맥북 프로(MacBook Pro) ▲더 빨라진 아이맥(Mac) ▲새로운 포트를 장착한 맥북 에어(MacBook Air) 등 복수의 맥킨토시 제품군을 개발해왔다. 이 가운데 맥북 프로 제품은 디자인 외에도 '커서'를 조작하는 트랙패드가 더 커지고, 그래픽 카드 속도도 한결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PC제품에 공을 들이던 것은 여전히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맥킨토시 제품군은 지난해 이 회사 전체 매출 2337억 달러(약 262조)의 11%를 차지했다. 올해 3분기에도 태블릿인 아이패드 매출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